SECTOR
UPDATE

2025. 8. 26

EV/모빌리티팀

장정훈 Senior Analyst
jhooni.chang@samsung.com

서지현 Research Associate
jihyeon.seo@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2차전지 (NEUTRAL)

(2차전지)시대 42 -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소고(小考)

- 리튬 가격 한달 반 동안 37% 급등한 상황.
- 수요 이슈 보다 중국 이춘시 리튬 광산 생산 차질 우려가 배경
- 과잉 문제 해소 위한 중단 조치 보다 세수 확보 위한 재가동 가능성

WHAT'S THE STORY?

들어가는 글: 시장과의 대화 마흔 두 번째 이슈는 7월 이후 2차전지 밸류체인 주가 강세의 배경이 된 이슈 중의 하나인 리튬 가격 강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튬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수요 의존도가 큰 산업이다 보니 리튬 가격 반등을 배터리 수요 회복의 시그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리튬 다음으로 중요한 메탈인 니켈 가격은 동기간 지속 약세인 점을 감안하면 배터리 수요 회복 보다 공급측면의 이슈로 보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리튬 가격을 끌어올린 중국 시장 내 공급 측면의 이슈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광산업체 공급 차질 이슈로 불거진 리튬 가격 강세: 7월 1일만 하더라도 kg당 59.8 위안이었던 리튬 가격은 7월 중순 들어 중국의 광산 업체인 장거 광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불법 채굴 중단 통지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급등하기 시작해 7월말에는 70.9 위안까지 도달함. 채굴 중단 소식은 중국 리튬 공급 차질 가능성을 우려한 투기적인 거래가 선물 가격을 가격 제한폭까지 끌어올리고, 미결제 약정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영향을 미침. 이로 인해 현물까지 빠르게 강세 전환한데 따른 것인데, 거래소에서 투기성 거래를 자제하라는 공지가 발표되었고 이후 리튬 선물은 하한가를 기록하며 8월 초까지 조정받는 모습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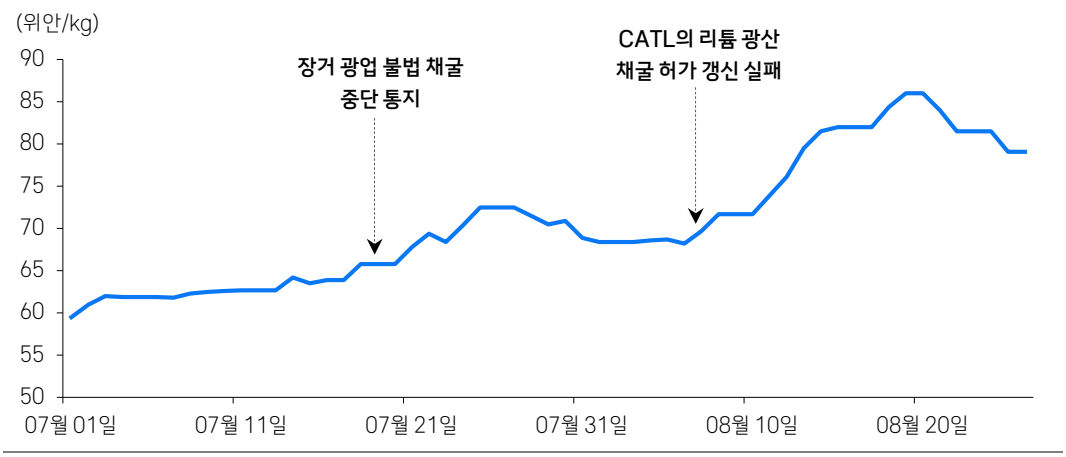
하지만 8월 9일, CATL의 젠샤워 리튬광산이 리튬 채굴 허가 갱신에 실패해 최소 3개월간 생산이 중단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리튬 선물 가격이 다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이후 열흘 가까이 강세를 보였음. CATL의 광산은 연산 리튬 생산량이 약 46,000톤(탄산리튬 환산 기준)으로 전세계 생산 캐파의 3%를 차지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공급 차질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가격 상승에 배팅한 상황으로 판단됨.

중국 리튬 광산 중단 관련 주요 이슈

일자	이슈
2023년 2월 24일	중국 정부 리튬 광산 불법 채굴, 유통 등 단속 공지 및 합동조사단의 리튬 산업 조사 착수
2023년 2월 28일	허가를 받은 일부 광산업체는 생산 재개
2025년 7월	개정 광물자원법 발효로 리튬이 전략적 광물로 지정. 채굴 권한이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로 이전
2025년 7월 17일	중국 장거 광업의 불법 채굴 중단 통지로 리튬 생산 중단
2025년 8월 9일	CATL의 이춘시 젠샤워 리튬 광산의 리튬 채굴 허가 갱신 실패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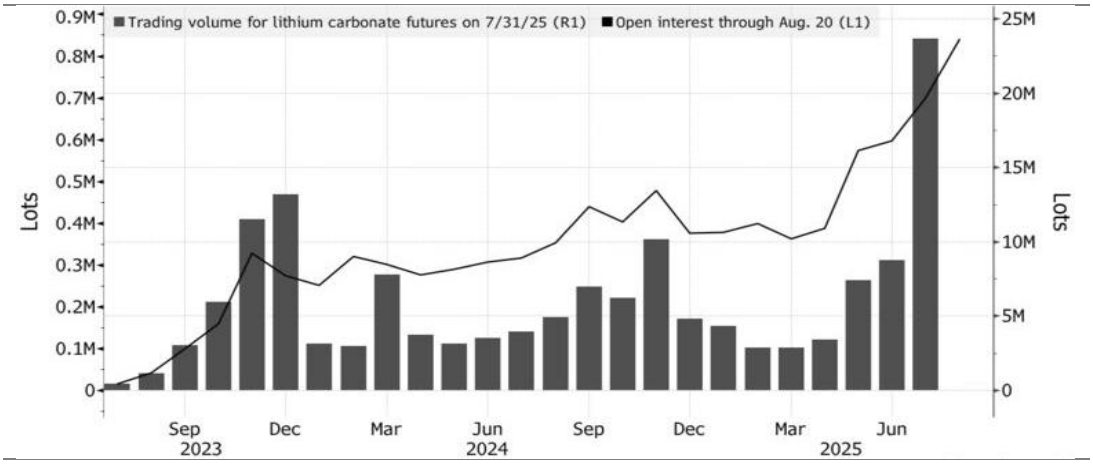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삼성증권 정리

7월 이후 리튬 가격 추이와 중국 광산 이벤트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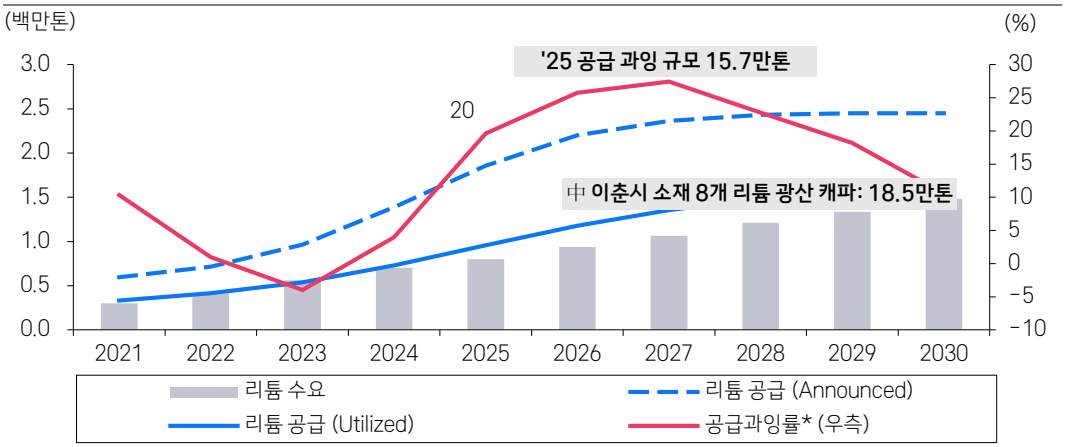
리튬 선물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 추이



자료: BNEF

8월 리튬 가격 반등을 낳은 CATL의 허가 채굴 허가 갱신 실패 이슈: 언론보도에 따르면 CATL을 포함한 이춘시 소재 8개 리튬 광산업체들의 채굴 허가증에 기재된 채굴 목록에는 '리튬'이 아닌 '세라믹 점토'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짐. 즉, 허가증에 명시되지 않은 '리튬'의 채굴을 진행하는 데에 대해 중국 정부가 문제를 삼은 것. CATL외에 나머지 광산업체들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면, 상황에 따라서는 이들 업체들의 생산 캐파(18.5만톤) 전체가 가동 중단될 수도 있는 것. 글로벌 리튬 수급을 따져보면 2025년 수요는 80만톤인데, 생산 가능 캐파(186만톤) 중, 실제 가동되고 있는 공급량은 96만톤으로 추정됨. 따라서 공급과잉 규모는 15.7만톤으로 계산되는데, 중국 이춘시의 8개 광산 가동이 중단되면 일시에 리튬 공급 부족을 낳을 수도 있는 것. CATL의 리튬 광산 중단 이슈에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함.

탄산리튬 수급 밸런스 추이



참고: *공급과잉률 = 리튬 수요 대비가동중인 리튬 공급 캐파 비중
자료: BNEF,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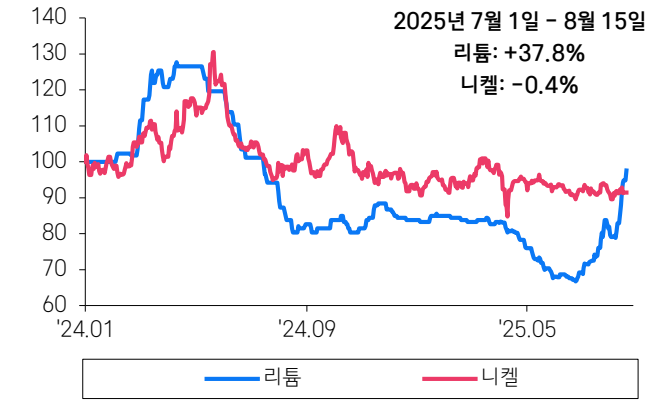
과잉 해소 위해 리튬 생산을 막을 것인가, 세수 확보를 위해 허용할 것인가: 만약, CATL의 리튬 광산 허가 갱신 실패가 단순히 채굴 허가 목록에 없는 리튬을 생산하기 때문이라면, 리튬 허가 신청을 하면 될 이슈로 볼 수 있음. 그동안 광산업체들이 채굴 목록에 리튬을 올리지 않은 이유는 채산성이 낮은 중국 리튬 광산에서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보임. 만약 채굴 목록에 리튬을 기재하고 생산에 따른 일정 세금을 내게 된다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허가를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렇게 되면 중국 광산업체들은 세금 부담만큼의 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중국 정부 입장에서 공급 과잉 산업의 하나인 리튬 광산업체에 대해 이번 기회에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급 해소를 꾀할 수도 있을 것. 하지만 이 경우 중국 굴기의 대표 산업인 중국 전기차/배터리와 달리 글로벌 리튬 생산 3위에 위치한 중국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음. 따라서 중국 정부로서는 세수 확보와 중국 경쟁력 유지라는 측면에서 중국 리튬 광산업체에 대해 형식 요건을 갖춰 채굴을 진행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이 경우 글로벌 리튬 수급은 이전과 같은 공급 과잉의 상황으로 리튬 가격의 추세적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리튬 가격은 올랐으나 니켈 가격은 약세의 의미: 리튬 가격 반등이 중국 리튬 광산의 생산 차질로 해석하는 또 다른 이유는 2차전지의 중요 메탈 중의 하나인 니켈 가격의 추이. 리튬 가격이 7월 이후 8월 14일까지 37% 급등하는 동안 니켈은 약 보합에 그침. 최근 2~3년간 리튬과 니켈의 가격 추세가 비슷했던 점을 감안하면 두 메탈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전방 2차전지 수요의 변화가 있었다기보다 리튬 자원에 한정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는게 타당해 보임.

리튬과 니켈 가격 변동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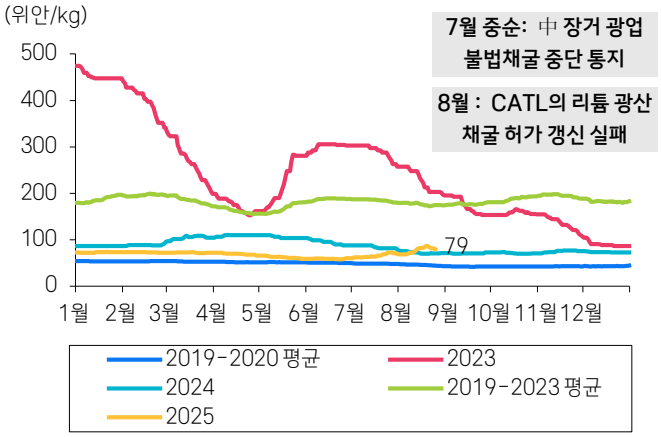
(지수화: 2024년 1월 1일 = 100)



참고: 8월 25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탄산리튬 가격 추이

(위안/kg)



참고: 8월 25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NCSI KS-SQI KCSI KCPI cc 소비자중심 Best Korea Brands 2024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